

3만원으로 어려운가정에

따뜻한 떡국상을 차려줍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쁜 생활에 쫓겨 평소에는 잊고 살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날이 다가와도 떡국 한 그릇을 끓일 여유가 없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사) '사랑의 친구들' 은 푸근하고 정겨워야 할 명절이 더 춥고 쓸쓸히 느껴지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몸이 불편한 분들의 가정을 찾아가 떡국거리를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올해에도 계획하고 함께 하실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떡국거리 마련을 위한 성금은 한 바구니분 (1구좌)이 3만원으로, 원하시는 경우 후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떡국 바구니는 각박한 나날을 살아가는 이웃에 새해의 희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후원금은 연말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란?

떡국거리(가래떡, 쇠고기, 멸치 등)를 담은 바구니를 마련하여 명절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함으로써 설날아침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행사입니다.

행시목표

'사랑의 떡국 나누기 준비위원회' 는 3만원짜리 구좌 총 2천 3백개를 모아 다가오는 설날 즈음한 2007년 2월 14일(수)에 2천 3백가정을 방문하여 떡국 바구니를 전달합니다.

행시준비

떡국 바구니를 꼭 필요로 하는 가정과 구좌를 기부할 분을 찾습니다.

- 받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홀로노인, 장애우, 병약자 가정 중에서 정부기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참여 방법: 떡국 바구니를 제공할 뜻이 있는 분은 1바구니분 3만원을 1구좌로 하여 희망하는 액수를 지원하면 됩니다.
- 2007년 2월 14일 모아진 성금으로 준비한 떡국 바구니를 지원이 확정된 가정에 전달합니다.
- 떡국 바구니 포장 및 전달은 '사랑의 친구들' 의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배달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모금 참여 방법

- 뜻이 있는 분은 국민은행 계좌번호 070-25-0040-131 예금주 (사) '사랑의 친구들' 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 송금하신 후에는 (사) '사랑의 친구들' 전화(02-734-4945~7)로 연락주십시오.
- 후원금은 연말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6년 12월 / 통권 제 24 호



또다시 떡국 바구니를 준비하며

박금옥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한해가 저물어간다는 느낌은 제게는 언제나 떡국 나누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올해도 벌써 11월16일과 12월14일 두차례의 회의를 하여 돌아오는 설을 즈음한 2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떡바구니를 싸도록 결정했습니다.

(사) '사랑의 친구들' 이 창립된 해부터 시작한 '떡국 나누기' 는 설날이 다가와도 떡국조차 끓일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떡국거리를 담은 바구니를 보내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내용물은 그동안 여러차례 조금씩 바뀌었지만, 떡국떡과 국물을 내는 쇠고기는 그대로입니다. 초창기에는 햄과 소시지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멸치와 국물용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1998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로 벌써 아홉 번째. 매년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40여명 준비위원들의 얼굴은 대부분 시작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중 떡국나누기를 할 때만 만나게 되는 얼굴도이제는 무척 친숙해졌습니다.

삼일여성동지회, 에스더기도회, 성북한마음봉사회, 비둘기회, 한국종이접기협회, 명원문화재단, 한반도재단 등의 일부 회원들은 오랜 떡국 나누기 자원봉사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떡국 구좌를 팔고, 떡국 바구니를 받아야 할 분들을 찾아내고, 직접 포장도 하고 달동네 좁은 골목을 누비며 배달하

는 일까지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떡국 나누기가 오늘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로 한 2천3백개의 바구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바구니(1구좌)를 마련하는 비용이 3만원이니까, 총 6천9백만원을 모금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작년부터는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공동주최하게 되어 한결 짐을 덜었습니다. 올해에는 뉴욕생명도 참여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모두 2천3백명의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 설날 떡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1구좌씩 사주는 것이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떡국 바구니를 받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는 홀로 사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설날을 즈음하여 한동안 공부방에 오지 않아 소식이 궁핍했던 어린이를 찾아갈 때 떡국 바구니를 유용하게 썼다는 공부방 선생님의 인사를 받을 때, 우리는 앞으로도 오랜 동안 이 일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떡국 바구니를 보내는 것은 단지 먹거리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관심과 감동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름방학이다! 우리는 캠프로 간다!

나라사랑어머니회, '사랑의 친구들'이 지원한 12개 연합캠프 여름방학 동안 일제히 진행돼

2006년 전국의 소외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2개 연합캠프가 여름방학 동안 일제히 실시됐다.
총 105개 기관 1,95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한 연합캠프의 즐거웠던 모습을 소개한다.



♥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 여름 캠프 '함께 꿈꾸는 마을'

2006년 8월 8일~11일 ◎ 전북 남원 민주노동당 수련원

우리가 살아갈 마을은 스스로 만든다! 공부방 청소년들의 캠프, '함께 꿈꾸는 마을'을 직접 만들면서 더불어 사는 삶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한다.

참여공부방 : 부평, 삼산해오름, 오순도순, 민들레, 솔숲, 송헌샘, 새벽 공부방



♥ 경남지역아동센터 서부경남지역공부방연합

'지리산아, 노을자!'

2006년 8월 10일~12일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남청소년수련관

방학이 되어도 특별히 갈 곳이 없는 농촌과 산촌의 어린이들. 이기적인 요즘 아이들에게 협동정신의 필요성을 길러주는 캠프

참여공부방 : 대신, 예술, 임마누엘, 미친, 그루터기, 햇살, 열방, 하늘바라기, 두량, 밀알, 두레 공부방

♥ 천안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삼면 바다 알기 프로젝트 2탄 - 남해바다 따라와! 빨리와!'

2006년 8월 10일~12일

◎ 경남 남해군 삼동면 한려유스호텔

3면이 바다로 싸인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학습. 내륙지방인 천안, 아산지역 어린이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캠프

참여공부방 : 광덕푸른, 남안푸른꿈, 낮은타리, 병천민들레, 서로사랑, 열린문화, 중앙파랑새, 햇살가득파랑새 공부방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인천지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006년 8월 10일~13일 ◎ 전남 고흥군 소록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에게는 자기고민이 많아지는 시기. 삶에 힘이 되는 꿈을 만들어내고 나누고 공감하는 자원봉사 캠프를 만들어본다.

참여공부방 : 계양신나는교실, 남구, 예꿈마을, 푸른나무교실, 도토리학교, 참나무학교, 산꼭어깨동무, 십정동, 공촌, 내일을여는교실, 늘푸른교실, 희망세상, 좋은친구들, 청학동, 내일 공부방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소록도를 다녀와서

고등학교 1학년인 나는 앞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봉사활동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마침 친구가 같이 가기로 해서 이번에 소록도에 갔었다. 알고 보니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서 약간 꺼려지기도 했지만 결국 가기로 결정했다.

소록도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서인지 매우 깨끗했다. 그리고 오염되지도 않았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한센병에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와도 많이 다르지 않았다. 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이상하게만 생각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우리들을 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청소만 하고 그냥 가라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거미줄도 걸고 바닥도 닦고 한 후에는 마음을 여셨다. 그리고 소록도에 봉사활동 가는 것이 힘

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 생각한 것보다 달리 그리 어렵지도 않았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길게만 생각했던 3박4일도 금방 지나갔다. 우리가 소록도로 갔을 때도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니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외롭거나 힘드시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지냈던 3박4일은 매우 더웠다. 땀도 비오듯 흐르고 벌레들도 가득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소록도에 다녀왔던 3박4일은 매우 의미있었고 그런 의미있는 일들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주영 (평촌고등학교 1학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2개 연합의 연합캠프에 참여하는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캠프가 지난 6월 21일~ 23일 강원도 원통 예술인마을에서 열렸다. 이 캠프에는 연합캠프를 신청한 12개 단체에서 43명의 공부방 교사들과 시설장이 참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치러질 연합캠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전캠프의 진행은 셋넷학교 박상영 교장이 맡았다.

♥ 대전지역 아동센터 5개 공부방
'피터팬의 여름동화'

2006년 8월 7일~9일 ◎ 충남 금산군 대운산청소년수련원
공동체 생활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수. 자연체험, 현장체험, 협동을 통해 자연보호와 남들과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
참여공부방 : 주안, 보문, 산서, 꿈나무, 예달 공부방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광주권역 지역아동센터
'와우~ 나도 간다'

2006년 8월 8일~10일
◎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담양군청소년수련관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여름캠프. 자연 속에서 협력과 협동을 통해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참여공부방 : 신원, 상록, 사직, 우성, 모해, 자연친구, 늘푸른, 해맑은, 탈무드, 외할머니덕, 열린, 희망 공부방

♥ 수성, 경산지역 아동센터연합공동체
'하나 되어 꿈의 날개를'

2006년 7월 26일~29일 ◎ 경북 경산시 대신대학교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문화적 욕구를 맘껏 발산해 본다. '내가 아닌 너,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체험한다.
참여공부방 : 드림키즈, 미석키즈, 예따라기, 동광, 아가씨

♥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2006 꾸러기 여름체험 캠프'

2006년 8월 16일~18일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현교회
자연상태의 숙영지에서 텐트를 치고 자연과 생활하는 캠프. 어린이들이 도심에서 체험하기 힘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자신감을 길러준다. 캠프에 꼭 필요한 진행요원 또한 공부방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중학생, 학교밖 청소년을 선발하여 함께 생활한다.
참여공부방 : 디딤돌학교, 새소망, 삼남꿈나무학교, 성남, 신나는신나는, 즐거운학교, 공부방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부산지부아동센터연합회
'진정한 자유! 스스로 만드는 질서 -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2006년 8월 14일~16일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우복지재단
공동체 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창작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나를 반성해보는 예절교육 캠프.
참여공부방 : 사랑빛, 나눔터, 새소망, 꿈샘, 열린, 예달, 평강, 모덕, 새나라, 웅달샘, 꿈쟁이 공부방

♥ 전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애들아 노~올~자!'

2006년 8월 8일~10일
◎ 전남 곡성군 곡성성림청소년 수련의 집
집과 공부방의 환경적인 이유로 유보되었던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캠프. 신나는 놀이, 건전한 놀이,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은 자유롭다.
참여공부방 : 고향사랑, 늘사랑, 목석죽, 박곡, 벌교원동, 예달, 옥곡, 주봉, 태인, 평화, 현정, 황월 공부방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강원지부
'성장'

2006년 8월 17일~19일 ◎ 설곡수련원
캠프를 통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이해해 보는 소중한 경험을 만나게 된다. 관계, 도전, 성장. 아이들 스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캠프.
참여공부방 : 은혜, 꾸러기, 늘기쁜, 구세군복존, 임마누엘, 동래, 햇살, 사복사랑자람터, 춘천갈릴리, 햇님뜨래, 벨엘 공부방



♥ 여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5개 공부방
'함께라서 행복해요'

2006년 7월 27일~29일 ◎ 충북 충주시 아가페수련원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래끼리 어울림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훈련.
참여공부방 : 구세군여주, 가남, 여주중앙 공부방



2006년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

9월 23일~24일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공부방 돕기 기금 마련 위해



(사) '사랑의 친구들'이 주최한 9번째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이 지난 9월 23일, 24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및 앞뜰에서 열렸다. 나라사랑어머니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랑의 친구들' 후원회가 후원한 2006년 바자는 질 좋은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여 이틀간의 바자 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

고급 의류, 지방특산물, 개성있는 아이디어 상품들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류관순 기념관 안쪽에 차려진 의류매장에는 오은환, 설유행, 노라노 씨 등 탑디자이너들의 고급의류와 핑, 라디오가든의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의류가 저렴한 가격에 선을 보였고 기념관 앞뜰에는 미국, 일본, 홍콩의 나라사랑어머니



회의 회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온 의류 및 악세사리, 다양한 일상용품이 자리를 잡았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나라사랑어머니회는 올해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해 그 어느때보다 회원들의 참여가 높았다. 전라남도에서 공수해 온 지방특산물도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고 신안 천일염과 황성 한우 코너도 바자 기간 동안 인기를 얻었다.

이외에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기업들이 일상생활용품과 건강용품을, 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호주 대사관에서 장신구와 와인을 각각 내놓았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품을 모아 꼭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하는



이희호 고문과 김범수 명예홍보대사가 경품권 추첨을 하고 있다.

코끼리장터도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의 특징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삭회 회원들이 1년 동안 모은 물품들을 판매하며 사랑 나누기에 동참했다. 바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먹거리장

터. 올해도 비둘기회, 성북한마음회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육개장, 파전, 떡볶이 등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먹거리를 선보였다.



열기 뜨거웠던 기증품 경매와 행운권 추첨



바자 둘째날의 하이라이트는 방송인 송도순 씨의 진행으로 유명해진 저명인사 기증품 경매. 영국 로드미어 백작부인이 스카프와 넥타이, 이희호 고문이 자필로 기도문을 새긴 도자기를 기증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위원장, 윤장순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 아시아나 항공 등 각계 저명인사와 기업에서 기증품을 내놓았다. 이희호 고문이 기증한 한글 도자기가 800만원에,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기증한 원형음료정리의궤반차도가 150만원에 낙찰되는 등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이어진 행운권 추첨에서는 '사랑의 친구들' 홍보대사인 김범수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는데 1등 100만원 예금증서를 비롯한 행운경품이 바자에 참여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다.

2006 '사랑나누기 바자한마당' 수입내역		
기업 협찬 물품 판매금	111,924,100원	총 95개사 참여
명사 기증품 코너 및 코끼리 장터 판매금	18,621,900원	
팔도 특산물 판매금	1,850,000원	
나라사랑 어머니회 미주 특산물 판매금	72,053,798원	
먹거리 판매금	7,338,700원	
행운권 판매금	18,704,000원	6,300매 판매
성 금	12,431,000원	개인 및 단체 27명
계	242,923,498원	

달리고 구르고 신나는 어린이들의 나라



2006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에서는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해 흥겨운 게임으로 신명나게 놀아보는 '어린이 나라' 행사도 진행되었다. 8개 공부방 총 220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어린이나라는 명지대 레크레이션 팀의 신나는 운동회와 한국중이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종이접기, 덕부르너 코리아의 캐릭터 놀이와 선물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녹색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에서 파주 문산 초록빛꿈터 친구들 50명을 초대해주셔서 차안에서부터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특별한 환영 속에서 꾸집한 티, 모자, 노트, 시계, 우산, 앨범, 캐릭터인형, 깊은 사랑과 상품을 가슴에 담고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레크리에이션 지도에 즐거워하며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또는 실내에서 감춰있던 우리들에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푸른 공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초록빛꿈터 교사)



하우스 투어(House Tour)와 '사랑의 친구들'

백 봉 현 (자원봉사자-하우스 투어 기획자)

20개월 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2년만에 한국에 나와 살게 되었다. 지금부터 적어도 3년은 더 한국에 있을 계획이라서 기분이 흐뭇하고 '사랑의 친구들'을 통해 봉사도 할 수 있어서 보람찬 몇년이 될 듯하다.

남편의 나라 미국에서 살 때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가끔 우리 교회에서 묵고 가는 노숙자 가족들을 위해 식사 대접하는 정도 밖에는 자원봉사를 못 하다가, 한국에 오기 전 8년 동안 살았던 홍콩에서는 그런대로 봉사활동을 맘껏 할 수 있었다.

'사랑의 친구들' 박옥옥 사무총장과 성인숙 이사님의 격려 가운데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던 하우스 투어를 서울에서도 하게 돼 여간 기쁘지 않다. 서울에서 가진 2회의 하우스 투어 중 지난 봄 4월에는 투어하는 길따라 개나리, 진달래가 한창이었다. 11월에는 초겨울 날씨답지 않게 화창한 날이어서 두 번의 하우스 투어 모두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다.

1차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저에서 시작해 32층에 자리잡은 마크 홀랜드 씨의 한강변 펜트하우스, 성북동에 위치한 외환은행 나눔재단 팰런 이사장댁, 작은집 두 채를 사서 합친 피터 바톨로뮤 씨의 한옥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침 일찍 35명의 방문객을 맞이준 네덜란드 대사 부부는 대사관저 곳곳을 손수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들른 한옥은 67년도에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도착해 강원도 주문진에서 영어를 가르친 남편 친구의 한옥이었다. 39년이 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한결같이 한국과 한옥을 좋아

한 그분은 요새도 한옥철거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 그런 데는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온 우리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공부방 어린이들의 집단 심리상담을 위한 기금 마련 하우스 투어는 11월 4일에 두번째로 이어졌다.

40분의 참가자들을 모시고 들린 곳은 크리스틴 켈러 부인의 유엔빌리지 내의 넓은 아파트,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저, 안국동의 서미화랑과 세계장신구박물관, 염색연구가 마야 씨의 한옥이었다.

두 번째 투어에서는 무엇보다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부부의 친절이 인상적이었다. 대사 부부는 투어에 참여한 모든 분께 일일히 기념품을 나누어주시고, 아랍에미레이트 국경일 행사에 초대까지 해주셨다.

그리고 보면 기금 마련 하우스 투어 때마다 동원되는 건 홀랜드 씨, 바톨로뮤 씨, 팰런 부인, 켈러 부인 등 기부 문화가 몸에 배있는 나의 외국 친구들이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음 하우스 투어에서는 어느 분들이 집을 열어 주실까?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하우스 투어로 모금한 작은 정성은 그냥 두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공부방의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도록 하는데 쓰이게 된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로마서 8장 28장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2007년에도 우리 모두 합심하여 더욱 좋은 '사랑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뛰어야겠다. (*)

가을산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도 보여요!

'나눔의 숲 체험교실', 10월 25~27일 청태산에서 열려



'나눔의 숲 체험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숲에서 생명활동을 관찰하고(왼쪽), 풍물과 레크리에이션(원 안)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녹색문화재단과 '사랑의 친구들'이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이 지난 10월 25일~27일 강원도 횡성의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다.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에서 생활하는 공부방 어린이 75명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2회에 걸쳐 참여했다.

도시를 벗어나 가을 단풍이 절정인 숲에서의 하룻밤. 어린이들은 숲전문가의 지도 아래 숲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생명활동을 관찰하고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티셔츠 만들기, 신명나는 풍물놀이,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의 숲을 체험할 수 있었다. 모듬을 만들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어린이들만의 힘으로 숲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추적놀이'와 가을산행은 도시에서는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자연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연의 소중함을 돌아켜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1년에 두차례, 5월과 10월에 진행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은 한국녹색문화재단의 후원 아래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올 한해 동안 나눔의 숲 체험교실에 참여한 공부방은 서울의 지역아동센터 조이스터디, 분도공부방, 씨앗공부방, 삼산지역아동센

터, 사랑의공부방, 경기도 수원 의 햇살가득공부방, 성남의 구세군새성남지역아동센터 147명의 어린이와 공부방 교사가 참여했다.

산에서 따먹었던 오미자의 맛

공부방에서 체험학습으로 강원도를 갔다. 추울 거라 해서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별로 안 추웠다. 숙소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맛있는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보물찾기를 하였다. 우리가 1등을 하였다. 그래서 재미있는 상을 받았다. 그건 비밀이다.

다음날 아침에는 '나무의 숲'을 구경하였다. 산에서 사는 동물들, 식물들 모두 다 구경하러 갔다. 거기서 나무에서 딴 오미자를 먹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신맛, 단맛, 짠맛, 떼은맛) 정말 맛있다. 그리고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청설모하고 다람쥐가 가래를 많이 갖고 간다. 오리나무도 봤다. 오리나무의 암술은 솔방울처럼 생겼고 수술은 벌레처럼 생겼다. 산에서 구경을 다하고 내려와서 점심밥을 먹고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 너무 힘들다.

백선영 (금북초등학교 5학년)

'사랑의 친구들' 이 함께 한 이벤트

어린이 뮤지컬 관람에서 영어마을 캠프까지 다양한 문화체험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소외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을 다양한 문화행사에 초대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행사에 초대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자신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제공된 문화체험 내용을 살펴본다.

어린이 뮤지컬 '아이언 키드'

올 여름 어린이 뮤지컬 한편이 소외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환타지를 선물해 주었다.

어린이 뮤지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큰 스케일, 화려한 무대장치 등으로 뮤지컬에 초대받은 어린이들은 한여름 더위를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뮤지컬을 제작한 켈투는 공연만 보면 꾸벅꾸벅 조는 부모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나이 터울이 있는 첫째와 막내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 성인극만큼 볼거리 많은 공연을 목표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도시의 이야기 '아이언 키드'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8월 4일(금) ~ 11일(금) 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돔아트홀에서 공연된 '아이언 키드'에는 총 72개 공부방 어린이 1,836명을 초대해 여름방학의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갖게 되었다.



공연 관람 후 기념촬영 하고 있는 어린이들.



멋진 무대, 진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소극장에서 연극을 본 적이 있는 몇몇 빼고는 뮤지컬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처음이었구요. 아름다운 조명과 멋진 음향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우와 직접 악수한 이야기는 몇번이고 한답니다. 뮤지컬을 보고 와서 사후 활동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루한 여름 무더위를 이기기에 넉넉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직 분수대의 시원한 물보라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영애 (꿈이 자라는 마을 교사)

까불까불 아이들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어린이 공연이라 뻔한 스토리에 뻔한 캐릭터들인 줄 알았는데 무대장식이며 조명, 음향, 배우들의 실력까지 굉장히 만족이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거기에 푹 빠져서 무섭다고 숨기도 하고, 까불까불 공부방 아이들도 고개를 숙 빼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어린이용 방석까지 준비한 극장측의 배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태숙 (파랑새나눔터 공부방 교사)

외환은행과 함께 한 '송년음악회'

외환은행에서는 공부방의 청소년들을 클래식 음악회로 초대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송년음악회에는 헨릭 쇠퍼의 지휘 아래 차이코프스키와 베르디, 구노의 오페라와 J. 스트라우스의 왈츠 등 모두 13곡을 연주했다.

12월 7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 공연에는 5개 공부방에서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47명이 참여해 좀처럼 접하기 힘든 클래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뉴욕생명과 함께 한 '영어캠프'



린든 맥멜린 뉴욕생명 사장이 영어 캠프에서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

뉴욕생명이 영어마을에서 1일 캠프를 열었다.

12월 16일~17일 이틀 동안 서울 풍납동 영어마을에 9개 공부방 어린이 97명을 초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들이 영어와 친해지고, 영어공부에 동기를 자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캠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했고 뉴욕생명에서 마련한 3대의 버스를 타고 영어마을에 도착했다. 영어 캠프에 앞서 뉴욕생명의 린든 맥멜린 사장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교육 시간을 마련, 주사위를 이용해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했다.

이 캠프에서 어린이들은 패스पोर्ट를 나누어받고 영어만으로 꼬박 24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속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

맨처음엔 영어만 쓴다고 해서 약간 불편하고 영어를 못해서 혼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엄청 재미있고 영어할 때 막히더라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1시간씩 듣는 영어수업도 학교수업과 엄청 차이날 정도로 재미있었고 밥도 맨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다. 만약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송보영 (부천중학교 2학년)

영어마을에서의 하룻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방에 온 녀석들 출석도 많지 않은지 정말 밖에서 눈과 친해지기 놀이를 열심히... 교실로 돌아온 녀석들, 영어캠프 어땠냐는 질문에 너무나 재미있었다며 한참 재잘재잘댁니다. 고학년들은 배웠던 게 다 나왔으며 기특하게 영어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피자도 만들어 먹었다며 자랑하고 못 만든 아이들은 울상을 짓더군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하니가 태어나서 처음 자른 침대랑 식사시간이 너무나 생각나네요. 가슴이 찡~ 정말,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추운 겨울, 아이들의 마음 한켠이 훈훈해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재순 (살롱공부방 교사)

미스터 피자와 함께 한 '사랑의 희망파티'

- 한해 동안 295곳의 공부방에 피자 13,619판 배달
- 매장 초청행사
- 매달 100명의 어린이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한국미스터피자의 황문구 사장이 5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한국미스터피자와 '사랑의 친구들'이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이 한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사랑의 희망 파티'를 12월 19일 서울 효창공원 안 백범기념관에서 열었다.

희망파티에는 한국미스터피자의 임직원과 가족점의 관계자, 한해 동안 미스터 피자로부터 지원 받은 공부방 어린이 90명과 공부방 교사 14명이 참여해 신나고 즐거운 피자파티를 즐겼다.

한국미스터피자는 올 한해 동안 13,619판의 따뜻한 피자를 공부방에 배달했고 100명의 어린이에게 매달 생활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대해 현란한 도우쇼와 피자를 함께 즐기는 매장초청 행사도 병행해 왔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해 동안 피자가 배달된 공부방은 전국에서 모두 295곳으로 지원된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억 7천7백만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한국미스터 피자 본사와 매장에서 피자 한판당 15원씩 적립한 금액에 임직원과 고객 모금함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모두 모아 마련했다.

2007년에도 3억 5천 6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피자배달과 매장초청 행사, 생활장학금 지원을 계속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희망파티에서 한국미스터피자의 황문구 사장은 인사말을



즐거운 게임으로 웃고있는 어린이들.

통해 기업이익을 사회환원하는 것이 미스터 피자의 경영이념인 만큼 "앞으로도 미스터 피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미스터 피자의 사랑 나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해 동안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은 100명의 공부방 어린이 외에도 3명의 어린이에게 5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당부했다.



공부방으로 배달된 피자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공부방 어린이들의 모습.

미스터 피자가 공부방으로 왔습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11월, 추워서인지 더욱더 지쳐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피자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다르다고는 하나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피자 한조각을 더 먹기 위해 혈투(?)를 치루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눠먹고 친구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덕임을 스스로 배워가고 터득해가는 진짜 공부를 하는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피자를 저희 공부방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친구들' 관계자 여러분과 미스터 피자 관계자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뿐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희정 (한울공부방 교사)

희망파티 2부 순서는 어린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마술쇼와 푸짐한 피자파티, 개그맨 김종석 씨가 진행하는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파티의 마지막 순서는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와 행운을 빌어주는 '허그타임'. 산타 복장을 한 러브 메신저와 한국미스터피자 임직원으로부터 푸짐한 선물까지 한아름 받은 어린이들은 "내년에도 또!"를 외치며 즐겁고 따뜻한 파티의 끝남을 아쉬워했다. (*)



미스터피자 매장으로 초청을 받은 어린이들이 도우쇼 시범단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도우를 돌려보고 있다.

도우쇼와 함께 한 피자파티

"아 배블러~!!"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피자를 아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도우쇼가 벌어지는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다녀와서도 연신 피자이야기 하느라 바쁘네요. '사랑의 친구들' 덕분에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우쇼도 너무 신기했고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워 하던 모습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었는데... 멀리까지 오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신 담당자님과 관계자들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욱 더 가까이 있는 '사랑의 친구들'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연순 (좌천지역아동센터 교사)

(사) '사랑의 친구들' 활동 일지

사랑의 간식 나누기



윤장순 운영위원장이 대한항공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친구들'은 전국의 공부방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간식 나누기' 5주년을 기념하며 잔여 기내식을 기증해 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2006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초대된 공부방 어린이들의 가을 운동회에 앞서 열렸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엘에스지 스카이 세프코리아(주) 제공
1차(7.4) ~ 24차(12.26) : 총 21개 기관 지원
9. 23 기내식 5주년 감사모임

(사랑의 기증물품 나누기)

(주)컴윈과 함께 하는 컴퓨터 나누기

자원재활용 전문회사인 사회적 기업 컴윈이 컴퓨터를 공부방과 나누었다. 컴윈은 폐기되는 컴퓨터를 사용가능한 재활용 컴퓨터로 재조립해 100대를 '사랑의 친구들'에 기증했다. 컴퓨터 기증식은 7월 20일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있었으며 컴퓨터 나누기는 8월 14일 안산에 위치한 컴윈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컴윈이 기증한 컴퓨터 100대는 경남, 전북, 대전, 경기 등 전국 20개 공부방에 전달돼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함께 하는 컴퓨터 나누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10대를 '사랑의 친구들'에 기증했다. 이 컴퓨터는 10월 27일 전북, 인천지역 2개 공부방에 전달됐다.

(어린이 뮤지컬 '아이언키드' 관람)

8. 4~11 총 72개 공부방, 1,836명 뮤지컬 관람

(사랑의 바자한마당)

9. 25 나라사랑어머니회 구공공부방, 도담공부방, 구세군여주지역아동센터 방문
10. 20 코끼리 재고물품 18박스 구로자활후견기관에 전달

기금 마련을 위한 하우스 투어

- 어린이상담 프로 기금 마련 위해



2차 하우스 투어에 관저를 공개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부부.

하우스 투어는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고 있는 청소년 집단 심리상담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이다. 4월15일과 11월 4일, 두 번에 걸쳐 74명이 참여해 기금조성에 기여했다.

개성있는 집, 아름다운 집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이런 집을 가진 4명의 저명인사와 4명의 외국인 부부가 '사랑의 친구들'의 기금 모금을 돕기 위해 일반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참관인들에게 집주인의 감각과 취향, 그들이 속한 나라의 문화 등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 5차 총평가회, 6차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6차 오리엔테이션.

공부방 어린이들과 전문 상담가가 만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 5차를 마치며 8월 30일에 총평가회를 가졌다. 총평가회에는 전문 상담가와 공부방 교사들이 자리를 같이 해 프로그램을 자체평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한편 11월 9일에는 6차 시작을 앞두고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서 전문 상담가와 공부방 교사가 만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6차에는 모두 15개 공부방이 참여하게 된다.

(미스터 피자과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

- 7. 25 사랑의 피자나누기: 대전·광주·충청·전라지역 16개 공부방에 배달
 - 7. 26 사랑의 피자파타: 창원점, 군부지역아동센터(17명)
 - 7. 27 사랑의 피자파타: 거제점, 새동영지역아동센터(35명)
 - 8. 30 사랑의 피자파타: 서면호점, 좌천지역아동센터(35명)
 - 8. 31 사랑의 피자파타: 울산대점, 하늘지역아동센터(24명)
 - 9. 26 사랑의 피자나누기: 경기·인천·강원지역 39개 공부방에 배달
 - 10. 12 사랑의 피자나누기: 197개 공부방에 쿠폰 총 2,630매 발송
 - 10. 31 사랑의 피자나누기: 대구·부산·울산·경상·제주지역 23개 공부방에 배달
 - 11. 28 사랑의 피자나누기: 추가지원 14개 공부방에 배달
 - 12. 7 사랑의 피자나누기: 추가지원 12개 공부방에 쿠폰 총 141매 발송
- 7.3 / 8.1 / 9.13 / 10.2 / 11.2 / 12.11
사랑의 장학금: 100명에게 5만원씩 총 500만원 송금

(기타)

- 7. 5 박금옥 사무총장 목련장 수상
- 8. 24 원대리 공부방 수해복구 지원금 30만원 송금
- 11. 14 김성수 회장 파라다이스상 사회복지부문 수상
- 12. 12~26 주지훈 갤러리로부터 과자 30박스, 어린이 도서 227권을 기증받아 기내식과 함께 총 15개 공부방에 전달

(영화배우 문근영 씨 후원금 기증)

영화배우 문근영 씨가 6월 27일 후원금 4천만원을 기증했다. 한국미스터피자의 CF 모델로 활동중인 문근영 씨는 광고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소외지역의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써달라며 사랑 나누기에 동참했다.

(명예홍보대사 김범수 아나운서 후원금 기증)



'사랑의 친구들' 명예홍보대사 아나운서 김범수 씨가 운영후원금 1천만원을 기증했다. 8월 24일, 12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기증한 김범수 씨는 2006년 사랑나누기 바자 한 마당에도 시간을 내어 행운권 추첨 코너를 진행하는 등 '사랑의 친구들' 명예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펼쳐왔다.

새로운 '사랑의 친구들' - 2006년 12월까지 신입회원

최봉섭, 유우진, 성수경, 김경영, 박금숙, 이내경, 윤주옥, 박금란, 현창훈, 김소민, 이수애, 윤형원, 임영숙, 김연호, 이한나, 김정현, 이미애, 황지현, 권태미, 김동령 님

'즐거운 공부방 영어교실' 2007년부터 시작

- 미래회와 이화여대에서 운영과 자원봉사자 지원

'사랑의 친구들'은 2007년부터 '즐거운 공부방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영어교실은 '사랑의 친구들', 미래회(대표 노소영), 이화여대가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공부방에 영어교육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4일 미래회로부터 기금 1억원을 박금옥 사무총장이 전달받았다. '신나는 공부방 영어교실'은 2007년 3월, 제1회 교육이 시범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006 사랑의 바자한마당'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류업체** (주)미스터블랙선, 오온원부띠고, 설윤형, (주)한해자크리에이션즈, (주)제이아이콜렉션, (주)에림양행, (주)미담포라, (주)씨인태네셔널, Macy's서울지점, (주)동일드방레, (주)중원어패럴, (주)슈페리어, (주)크리스토퍼션, (주)리얼컴퍼니, (주)한성FNC, (주)신성FNC, (주)사라 앙스모드, 이영희 프리젠틸, 미스김텔러
- **잡화** (주)까사미아, 금호전기(주), 안토니오제화(주), 3.1여성동지회, 흥진, 비단향꽃무, 코즈니, 레이디 로드미어
- **어린이용품** (사)아이코리아, (사)한국종이접기협회, (재)종이문화재단, 웅진생크빅, 덕부르너코리아(주)
- **화장품, 악세사리** (주)클리오, 트로야조, 한국콜마(주), 쉐쎄, (주)테리Enc, 보우실업
- **주방용품, 가전제품** (주)서화, 웅진쿠펜(주), 외환은행나눔재단, 우먼타임즈, 서울향료(주), 도솔인테리어, 대한상사
- **식품** 송학식품, 대신제분(주), 삼양사, CJ(주), 한국코콜라, 호원당, (주)티젠, House Recipe Tea Cake, (주)두산식품BG, 웅진식품, 생표식품(주), 삼진GDF, (주)농협창동농산물종합, (주)유유, 농협중앙회, 두산, 동아제약, 종가집, (주)코모도호텔, 밀알식품, (주)명보식품
- **기타** 신라구두, 바이너르, (주)화이버텍, 소야코리아, (주)에버, 순창매실교추장, (주)엔초스, 한미식품, 티타임스퀘어, (주)주이네, L.J.L미용예술교육원, 다우리공예, 명원문화재단, (주)로드박스롯데삼강, 세계장신구박물관, 라스포사, 이소영친방, 아름다

- 문우리음식연구원, 나무물고기, JK상사, 솔미트, (주)한영랑카루, 화이팅, 나무꾼파션너, 이썩희, 김영자,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뉴욕생명, Christian Hauswirth, 진말숙, 모죽, 이정자, 이인호, 김연주, 김성재, 이해찬, 김근태, 윤장순, 임채정
- **후원회** (주)부영, (유)듀폰, 한화종합화학(주), (주)동양매직, 삼오엔케이(주), LG전자(주), 삼성전자(주), (주)빌트조명, (주)대방포스텍, 월성조명, 대림통상(주), 대성산업(주), 리나이코리아(주), (주)롯데가공, 애경산업(주), 보양해조(주), 대림산업(주)
- **대사관** U.A.E대사관,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 **팔도특산물장터, 먹거리** 이태여성이카데미, 전남남도장터, 우리가족, 성북한미음봉사회, 5.17가족, 부산제일교회, 비둘기회
- **행운권 기증** 외환은행, 아시아나항공, Pacific Islands Club Korea, 한국고속해운, 진태옥, 김병원, 인데코, 웨다튼위커호텔, 부산코모도호텔, 대한항공, 체미현, 서울프라자호텔, 우먼타임즈, 여성신문사, 달가비, 지하, (주)사미리, L.J.L미용예술교육원, (주)더운터온레포츠, 메가박스씨네플러스(주), 진도패션, 프리아
- **후원금** 이희호, 권양숙, 삼성복지재단, 심치선, 최순자, 장상, 한국노비티스(주), Jeffrey D Jones, 국민은행 청운동지회, 우리가족, 공공장교 이목회, 권오갑, DJ Road.com, 홍리희, 후광김대중마을, 유재건, 이장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대전문화사, 임페리얼 트레이딩, (주)동방전기, 사조건설(주), 스마트산업(주), 맘모스뷔페, (주)광국실업, (주)대흥 음향정보통신